한국경호경비학회 – 제47호(2016): 85–117

투고일 2016. 5. 9, 심사일 2016. 6. 13, 게재확정일 2016. 6. 20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오 세 연·윤 경 희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오 세 연*·윤 경 희**

〈요 약〉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 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 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IS테러, 이슬람테러, 소프트타깃, 무차별적 총격테러, 테러방지법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제1저자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분석
Ⅳ.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Ⅴ. 결론

Ⅰ. 서 론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고 있으며,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양상이 과거 테러단체의 하드타깃 테러와 비교하여 볼 때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타깃 테러로 변화하면서 대중들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2015년 11월)와 터키 이스탄불(올해 1월 12일)에서 발생한 IS테러단체의 소프트타깃 테러가 인도네시아에서도 발생하면서 자국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1]. 이러한 테러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이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도심에서 발생한 테러는 IS테러단체가 아시아에서 저지른 첫 번째 '소프트타깃' 테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시아를 비롯한 우리나라도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등 테러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 테러는 IS테러단체에 의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테러로써 기존의 IS테러단체가 서방 선진국 또는 시리아 등 이슬람 수니파와 대립하는 세

1) 뉴스한국, "IS 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아시아까지 번졌다", 2016년 1월 16일자.

력을 대상 지역으로 한 테러가 주였다면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행위는 이제 더 이상 테러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시아와 거리가 먼 다른 나라에서나 발생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대중들의 공포심을 극대화시켜는 파급효과도 있었다. 프랑스 파리 테러(2015.11.13.)이후 시리아 하사카 주 테러(2015.12.30.), 이라크 바그다드 쇼핑몰 자살폭탄테러(2015.1.11.), 터키 이스탄불 관광객 테러(2015.1.1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2015.1.14.) 등 IS테러단체에 의한 크고 작은 소프트타깃 테러는 지구촌에서 일상화 되는 양상[2]을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작년 10대 소년이 IS에 자진 가입해서 행방이 묘연하고 정보당국에 의하면 국내 IS테러단체 지지자가 100여명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국내 IS테러단체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활동을 통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총체적으로 국·내외적인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서 45개 국가 중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평가돼 25위에 머물렀으며[3] 이는 한국정부가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만약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변화대응역량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에 대한 심각성과 자국내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IS테러단체의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발생되어진 소프트타깃 테러사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테러사건사례들을 분석하여 향후 IS테러단체의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을 논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테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미디어팬, “아시아 상륙 IS '소프트타깃' 테러 한국이 위험하다”, 2016년 1월 18일자.
3) 연합뉴스, “국가별 변화대응능력지수(CRI) 순위”, 2016년 3월 21일자.

Ⅱ. 이론적 배경

1. IS테러단체에 대한 논의

1) IS테러단체의 개념

IS는 이라크,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를 뜻한다. 보통 명칭을 줄여서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로 부르거나 IS(Islamic State)라고 부른다. Levant는 아랍어의 알-샴과 같은 단어로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등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오세연·윤경희, 2015: 286).

IS단체에 적대적인 나라들도 이들을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단호히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잠마왓 알타위드 왈지하드(무자헤딘과 지하드 조직)라는 이름으로 결성한 뒤 여러 번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2014년 6월 29일 칼리프가 통치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공식 명칭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었다(오세연, 2015: 430). 특히 IS테러단체의 지속적인 명칭 변화는 이 테러조직이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군사적, 종교적,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지역이 칼리프가 지배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성을 가진 이슬람국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모든 이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치적 권위체인 동시에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세력 내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자 컨트롤타임을 표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윤민우, 2014: 15-16).

IS테러단체의 조직체계도를 살펴보면 최고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를 정점으로 4개의 위원회와 7개의 직속부서로 편재되어 있다. 위원회는 영상 및 웹진제작을 담당하는 홍보위원회, 조언을 구하는 자문평의회, 시리아 담당 12인 위원회 그리고 이라크 담당 12인 위원회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직할 부서로는 재정, 기획, 군사, 법무, 지원, 종교경찰, 첩보부서로 구분되어 핵심조직 아래 각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에미르를 두고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을 통치하는 군 조직을 가지고 있다(정육상, 2015: 179). 또한 IS테러단체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은 2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직원들은 아프리카, 중동, 유럽,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출신등과 외국인 용병을 포함하여 100여개의 국가에서 1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육상, 2015: 184).

2) IS테러단체의 발생테러 유형과 특징

IS테러단체는 인질참수형테러, 자살폭탄테러, 무차별적 총격테러, 약탈테러 등을 이용한 다양한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 테러의 특징을 살펴보더라도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결합한 울프팩 테러를 이용하거나 다른 테러조직과 연대하여 기동성 있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소프트 타깃테러로 진화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다른 테러조직과 테러행위나 수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IS테러단체의 발생테러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IS테러단체는 서방 국가에 군사적으로 밀리는 경우 '인질 참수'로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인질 참수를 시작해 2015년 2월 1일 일본인 인질 2명의 참수와 2월 4일 요르단 조종사 처형 등의 참수 동영상을 통한 선전 활동으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새 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IS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되어진 테러행위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4)]

두 번째, 소년병을 활용한 자폭 테러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아동·무력분쟁 레일라 제루기 특사는 9월 8일, 유엔 안보리 보고를 통해 이슬람 국가 전사들이 어린이 수 백명을 숨지게 했으며 이들 어린이 일부를 자폭 테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슬람 국가가 13세 소년들까지 무기 운반, 경계 근무, 민간인 체포 등에 동원한다며 일부를 자살폭파범으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5)]

세 번째, IS테러단체는 총기류 및 중화기에 의한 무장공격을 통해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 등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일련의 테러사건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31일, IS는 점령지인 안바르주 히트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다 후퇴한 알부-님르 부족원 50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총으로 살상하였다. 같은 날라마디 북쪽에서도 아부-님르 부족원으로 보이는 35구가 발견됐고, 앞서 10월 30일에 안바르주 히트 마을과 라마디 북쪽 등 2곳에서 알부-님르 부족의 시신 220여구가 집단매장 된 장소가 발견되었다.[6)]

---

4) 정규진. 미 공습 안 먹히는 시리아 IS, 왜 일까?. SBS. 2014년 10월 5일; 조선미. IS '힘에서 밀리면 인질 참수' 전략. 메트로신문. 2014년 10월 5일; 이정진. '패배 뒤 참수' 행동양식 보이는 IS.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

5) "IS, 어린이 수백명 목숨 빼앗아… 자폭테러 이용도".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6)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년 12월 11일.

네 번째,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기업에게 폭파 협박을 하는 등 정기적인 약탈을 일삼고 있다. 이 강탈은 수익원 중 하나로, 은행 및 금 가게를 약탈하여 재원을 얻기도 한다. 2014년 6월 모술 전투 기간 동안, 지역 주지사에 따르면 모술 중앙은행의 4억 2900만 달러를 약탈한 이후 IS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단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금괴도 대량으로 유출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역 분석가인 브로운 모세스는 트위터에서 "지하드 전체가 많이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4억 2900만 달러로 ISIS는 1년간 월급 600달러의 조건으로 6만 명의 병력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7]

이러한 테러발생양상을 종합해보면 IS테러단체는 인명의 살상 납치, 건물과 재산의 파괴, 위협에 의한 공포조성을 하는 폭력, 폭력사용에 의한 위협의 양상과 테러의 대상이 무차별적 공격의 양상이 무고한 제3자나 민간인을 포함하는 무차별적 공격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 국가 내와 외부에 지부를 둘 정도로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오세연·윤경희, 2015: 285-286).

2.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한 논의

1) 소프트타깃 테러의 개념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타깃'의 반대 개념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행위를 가리킨다. 미국의 진보적 지식인 놈 촘스키에 따르면 소프트타깃은 지난 1986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에서 미국이 콘트라 반군으로 하여금 민간병원과 학교 등을 공격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정립된 것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다. 위험이나 저항 없이 쉽게 테러를 자행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알카에다와 같은 반정부 세력들이 주로 이를 이용한다.[8]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와 관련하여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2015년 11월 13일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감행해 일상 공간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살상을 가한 소프트타깃 테러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다. 이후에도 터키,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벨기에 등 최근 유럽과 아시아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7) http://edition.cnn.com/2014/06/12/world/meast/who-is-the-isis
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74&cid=43667&categoryId=43667

서 소프트타깃 테러를 중심으로 발생되어지고 있다. 또한 소프트타깃 테러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보다 공격이 손쉽고, 적은 비용으로 대량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언론의 조명을 크게 받아 그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아무 죄가 없어도 '나도 언제 어디서든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장돼 과시 효과가 다른 테러수법보다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9].

그 동안 IS테러단체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역 확보에 테러행위를 감행하였다면 파리테러를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그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지금까지 IS테러단체의 해외 테러가 선전매체나 동영상을 통해 외로운 늑대를 선동하는 방식이었다면 파리테러 사건 이후에는 IS테러단체가 외부에서 테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운 후 현지사정과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외로운 늑대[10]를 통해 실행하는 방식을 취했고 있어서 향후 국제사회의 테러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소프트타깃 테러의 특징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되어진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분석하여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한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게릴라형의 동시다발적인 테러 형태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 파리도심테러와 벨기에 브뤼실 테러 등을 보더라도 한곳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겨냥한 테러의 형태를 나타내기 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의 장소를 골라 연쇄적으로 테러를 발생시키는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소형무기와 소규모인원을 이용한 대량살상방식을 통한 테러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과거 알카이다 테러조직은 뉴욕세계무역센터 등 서구의 상징적인 장소를 오랜 준비와 항공기 등의 대규모 장비를 동원하여 테러행위를 발생시켰다면 지금의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의 형태는 보안검색을 쉽게 피할 수 있으면서 인명살상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명살사의 무기 형태로는 자살폭탄테러와 테러범의 총기난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소규모인원에 의해

9) 헤럴드 경제, "IS 연이은 테러가 내포한 또 다른 위험… 알카에다와의 '테러 경쟁'", 2016년 3월 24일자.

10) 외로운 늑대유형의 테러리즘은 테러조직이나 세력 등에 의한 조직적 전문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2013년 보스톤 마라톤테러의 폭탄테러의 주범이 전형적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에 속하며 이들은 스스로 테러방법을 습득하고 스스로의 훈련과 계획에 의하여 공격을 감행한다(윤민우, 2014: 238).

이러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장소의 상징성을 찾기보다는 보안이 취약한 곳을 찾아 테러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셋째, 정부기관이나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하드타깃'과 반대로 소프트타깃 테러의 대상은 위험이나 저항 없이 쉽게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를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테러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소프트타깃 테러가 불특정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테러장소로는 주로 공연장, 경기장, 식당, 번화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공격의 타깃이 된다. 기존 알카이다 테러조직은 무슬림을 테러대상에서 가급적 제외시키거나 배제시켰다면 IS테러단체의 최근 발생되어진 소프트타깃 테러는 전 세계시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특정 민간인에게 무차별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IS테러단체의 소프트타깃 테러의 특징은 IS테러단체와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다양한 테러조직과의 협업을 통하여 대규모 무차별적 살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로운 늑대형 테러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IS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거나 충성을 맹세한 다른 테러조직은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IS 지지 단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전 세계 테러조직이 IS테러조직과 연대하여 기동성을 갖추고 대량살상이 가능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3. IS테러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변화 양상

<표 1>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IS테러단체의 테러사건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테러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오세연, 2015: 432-433).

첫째,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결합한 울프팩 테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9·11 테러, '이슬람국가(IS)'의 학살 등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던 대규모 조직 테러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IS단체에 의한 테러행위의 위세가 지속되면서 테러의 양상도 진화되어 은닉과 기동력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울프팩(Wolf Pack·늑대무리)' 테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 테러행위도 외로운 늑대형 테러의 결합을 통한 울프팩 테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위에서 언급

한 것처럼 기존의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이용하기 보다는 IS테러단체의 최근 테러형태를 보면 IS테러단체와 동조세력의 테러단체의 연합이나 외로운 늑대형 테러가 여러 테러단체와 결합되어진 울프팩 테러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를 중심으로 향후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1〉 2014–2015년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된 테러사건

2014	8/19, 9/2 미국프리랜서 기자 제임스 라이트 롤리, 스티븐 2명 참수살해
	9/13 영국인 구호단체 직원 데이비드 헤인즈 참수살해
	9/24 프랑스인 산악 가이드 에르베 구르델 참수살해
	10/3 영국인 구호 활동가 엘렌 헤닝 참수살해
	10/22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기난사
2015	11/16 미국 자원봉사자 피터 캐식 참수살해
	1/7 프랑스 샤를리 에브도 총기난사로 12명 사망, 11명 부상
	1/27 리비아호텔 총기난사로 한국인 1인 포함 9명 사망
	1/29 이집트시나이반도일대 자살폭탄테러 공격으로 민간인 40명 사망
	1/30 파키스탄 시아파사원 자살폭탄 공격으로 61명 사망
	2/1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시 참수살해
	2/3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화형
	2/14 덴마크 코펜하겐 무함 마드풍자 화가 테러
	2/15 이집트 콥트교도 21명 참수살해
	3/18 튀니지 박물관 총기난사로 23명 사망 40명 부상
	3/20 예멘 자살폭탄 테러로 137명 사망

자료출처: 오세연, "IS테러를 중심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양상 분석" 2015: 432.

둘째, 테러공격 대상의 확대와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테러공격을 통한 심리적공포를 조성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과거 테러범들이 주로 국가원수나 국가기관을 공격함으로써 희생자와 비희생자를 구분하려는 선택적 테러를 감행했다면 IS단체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국제테러는 테러와 직접관련이 없는 민간인과 고대 문화유산 등도 테러대상으로 포함시켜 테러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테러행위를 자행하

고 있다. 상징적 장소의 대규모 테러보다 보안이 취약한 장소에 소규모 인원에 의한 테러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여 IS테러단체에 의한 전 세계 시민에 대해 가장 공포심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셋째,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 테러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IS는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과의 조직연대를 통하여 그 세력을 아프리카지역까지 넓히게 되었고, 이집트무장단체 시나이 지방도 IS테러단체에 충성맹서를 하면서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여 민간인 40명을 사망케 하는 등 IS테러단체의 세력이 전 세계로 확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향후 IS테러단체의 단독 테러행위보다는 다른 테러조직과의 협업을 통한 테러행위가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테러조기간의 협업 테러행위는 인터폴과 경찰 등의 수사와 보안검색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동성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에 대량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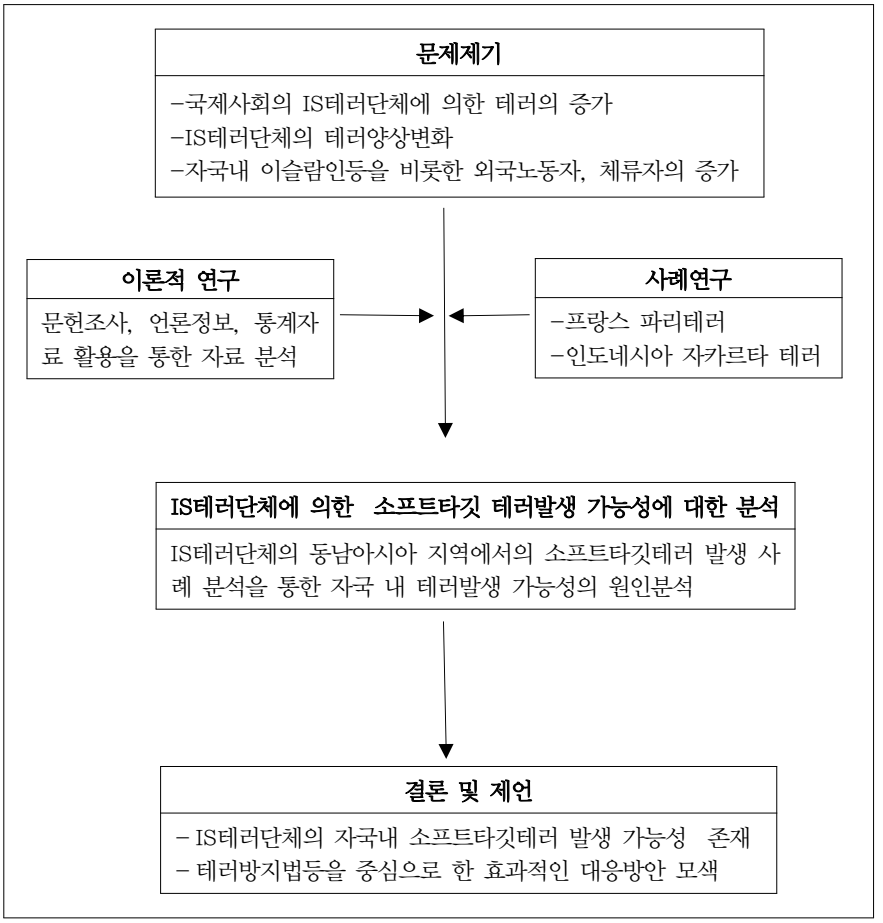
Ⅲ.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원인분석

아직까지 자국내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는 발생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IS테러단체의 아시아로의 테러공습확대와 자국내 이슬람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및 체류자의 증가 등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의 위험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위험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한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소프트타깃 테러의 발생으로 예상되는 가능성, 둘째, 아시아의 IS테러단체 가입지지 세력의 증가와 자국의 국제변화대응능력지수의 낮음으로 인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 증가, 셋째, 자국내 이슬람인을 포함한 이주노동자, 체류자등의 유입증가와 이슬람포비아의 확산으로 인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타깃 테러는 다른 테러행위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수의 자생테러를 이용하면

서 눈에 띄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고 인터폴을 피해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민성과 보안성 유지가 뛰어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테러행위에 비해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국 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논의의 전개 과정

1.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원인분석

1) 최근 아시아(자카르타, 이스탄불 등)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타깃 테러의 증가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감행되면서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스탄불과 자카르타 테러는 아시아에서 발생되어진 최초의 테러로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도 테러의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IS테러단체에 의한 자국내 테러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자카르타 테러는 2009년에 무장단체가 서방세계의 상징과도 같은 메리어트 호텔과 리츠칼튼 호텔을 동시에 공격한 이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첫 중대한 테러로 특히 테러범들이 서방에서 유입한 스타벅스와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파급력은 매우 크다[11].

IS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최근의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현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테러 발생현황

구분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테러 발생현황
2015. 10. 10	터키 앙카라 자살폭탄 테러사건
2015. 10. 31	이집트 시나이 반도 상공 러시아 여객기 추사건
2015. 11. 12	레바논 베이루트 자살폭탄테러
2015. 11. 13	프랑스 파리테러
2015. 12. 30	시리아 아사카 주 테러
2016. 1. 11	이라크 바그다드 자살폭탄테러
2016. 1. 12	터키 이스탄불테러
2016. 1. 1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
2016. 3. 22	벨기에 브뤼셀 공항 폭탄테러

자료출처: 이옥남, 파리테러 전후 전 IS '세계 소프트타깃 테러현황' 자료정리요약, 2016.

11) 뉴스한국, "IS 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아시아까지 번졌다", 2016년 1월 15일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IS테러단체의 테러 발생지역이나 공격이 주로 유럽과 시리아, 이라크 등의 중동지역에서 발생되어졌다면 2016년을 기점으로 이스탄불과 자카르타 등의 동남아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발생되어진 최초의 테러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그동안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IS테러단체가 동남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공격할 전진기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각지에서 자생한 무장조직들이 IS테러단체에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으로 IS가 프랜차이즈(가맹점) 늘리듯이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인데다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IS테러단체가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IS테러단체에 가입한 인도네시아인은 400명이 넘으며, 말레이시아인은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에 있는 무장단체 4개가 필리핀 내 무슬림 자치지역인 바실란의 훈련장에 모여 IS테러단체 아래에서 통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12].

IS테러단체가 아시아지역에 테러조직 구성원을 양성할 수 있는 거점을 가진 훈련장을 만들어 폭약 전문가, 군사 교관 등을 파견하여 테러조직원을 양성한다면 아시아 국가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해 시리아보다 접근하기 훨씬 쉬운 동남아 지역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자국의 사정을 가장 잘 알 고 있고 입국이 쉬운 테러조직원을 돌려보낸다면 아시아지역은 물론 우리나라도 충분히 소프트타깃테러를 통한 인명살상 가능성이 높다.

2) IS테러단체 가입지지 세력의 증가와 자국의 국제변화대응능력지수의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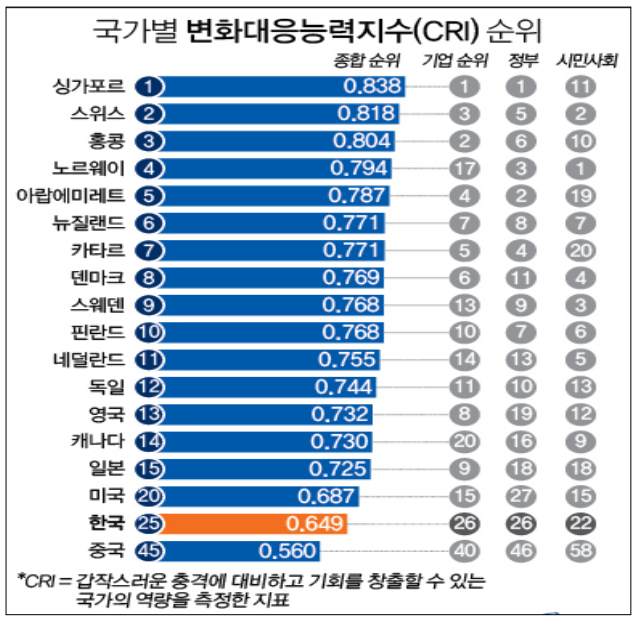
미국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IS의 세력은 2만 명에서 3만 1,5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S테러조직원은 아프리카출신 5,760명, 중동출신 5,441명 유럽출신 4,435명,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출신 410명 등 다양한지지 세력으로 구성되어있다(정육상, 2015: 164).

특히 동남아시아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이슬람교도가 2억~2억5000만 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IS테러단체에 합류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최소 400여명이고, 이 중 귀국한 40여명은

12) 메트로 신문, "IS, 인도네시아 거점화… 동아시아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2016년 1월 16일자.

집중 감시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도 당국도 시리아와 이라크로 건너가 IS에 가입한 자국민 20명을 감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당국은 자국민 47명이 IS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주 국민 120명도 IS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IS 추종 세력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13].

또한 한국내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테러단체 가입자 50여 명이 입국했다가 출국조치 당했으며 자발적으로 IS테러단체에 공개지지를 표명한 국내인도 10명이 된다. 게다가 IS가 지난해 8월 보복을 선언한 미국 주도의 '십자군 동맹' 62개국에 우리나라도 포함[14]돼 있어서 IS테러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프트타깃 테러 공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 "국가별 변화대응능력지수(CRI) 순위", 2016년 3월 21일자.

〈그림 2〉 국가별 변화대응능력지수(CRI) 순위

13) 뉴스줌, "아시아에 번지는 'IS 공포'… 각국 테러 비상" 2016년 1월 15일자.
14) 연합뉴스, "IS 아시아 상륙에도 잠자는 테러방지법안", 2016년 1월 15일자.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해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집계하는 <그림 2>의 각 국가별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를 살펴보면 한국의 점수는 0.649(1점 만점)로 25위로 자국내 범죄·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 100점 만점에 50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0.661점(14위)보다도 점수가 낮아졌으며 특히 범죄와 테러로부터 시민사회와 기업, 인프라를 보호할 능력(Security)에 있어서 주변 아시아 국가인 홍콩, 일본 등에 비해 테러발생시 대응능력이 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국내의 상황은 IS테러단체의 연계에 의한 테러발생시 아시아 최초의 테러인 자카르트 테러에서도 보듯이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IS테러단체의 연합과 지지 세력의 증가는 IS테러단체에 의해 충분히 자국내 테러발생이 가능하며 테러발생 또한 자국의 지리적, 정치적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자국내 국민이나 아시아지역의 IS테러조직원에 의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IS테러단체의 최근 테러발생의 양상을 보면 공항과 항구 등의 이용을 통한 입국 시 보안검색을 잘 피할 수 있는 소규모 테러조직 즉 울프팩을 중심으로 공연장,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대량인명 살상방식의 소프트타깃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3) 자국내 이슬람인 노동자와 체류자 등의 유입증가 및 이슬람포비아[15]의 확산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2월말 현재 체류외국은 1,856,656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1,787,728명)에 비해서는 3.9% 증가하였고, 국적별는 중국 946,895명(51.0%), 미국 139,868(7.5%), 베트남 134,048명(7.2%), 태국 88,845(4.8%), 필리핀 53,598명(2.9%) 순으로 나타났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4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2010년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아랍계 무슬림의 숫자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5,747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의

15) '이슬람(islam)'과 싫어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말로,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교에 대해 공포를 느끼거나 혐오하는 현상을 뜻한다. 포비아는 강박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 특정 대상에 결부되어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반응을 일컫는데,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혐오현상을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xeno)를 붙인 제노포비아(xenophobia), 광장공포증을 아고라포비아(agoraphobia)라고 한다.

조사에서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약 53,407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아랍계의 출·입국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출·입국자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아랍인 출·입국 현황 비교

국적별	2010	2014
리비아	1,733	2,133
모로코	830	2,136
사우디아라비아	3,962	10,262
수단	1,115	1,157
시리아	1,723	1,398
아랍에미리트연합	2,281	10,668
알제리	807	1,519
예멘	574	1,364
오만	697	1,264
요르단	3,010	3,172
이라크	2,154	2,942
이집트	4,149	7,370
지부티	12	22
카타르	282	1,351
쿠웨이트	881	2,549
튀니지	732	1,593
팔레스타인	273	356
합계	25,216	53,407

자료출처: 고광영, "한국 무술림의 상황과 무술림선교전략, 2013: 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통계연보 재구성.

최근 IS테러단체조직의 거점과 파리나 벨기에 등의 테러발생을 살펴볼 때 테러범죄자들은 대부분 IS테러조직과 연계되어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무슬림들이 대부분 이였다. 이미 테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벨기에 브뤼셀 외곽도

시 몰렌베이크는 예전부터 유럽 내 이슬람의 '정치적 수도'로 불리며 인구 10만 명 중 30%가 무슬림이다. 물론 무슬림들이 모두 테러와 관련된 범죄자가 아니지만 과거 테러의 전례와 최근 발생한 테러 공격자들을 살펴볼 때 또는 이미 많은 수의 무슬림인들이 한국내 노동자로 들어오거나 체류 중이라는 점과 근래에는 시리아 난민들도 자국에 입국한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무슬림에 대한 국내 테러공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슬람포비아이다. IS테러 이후 이슬람 인구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편견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이슬람인으로 하여금 자생적 테러를 발생시키거나 IS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자국내 테러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프랑스 파리테러 이후 프랑스인의 100점 만점에 76점으로 무슬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신적이다(58%) △솔직하다(51%) △폭력적이다(50%) 등 부정적 답이 많았다. 무슬림도 미국인들에 대해 △이기적이다(68%) △폭력적이다(66%) △욕심 많다(64%) 등 좋지 않은 시선이 압도적이었다[16]. 또한 프랑스의 이슬람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133건에서 2015년 약 400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 가까이 반이슬람 증오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17]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3세계의 외국 노동력의 국내 유입,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유학생의 유입 등 국내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자국민의 외국 이주노동자와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주노동자와·체류자의 자국 내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병행되면서 자국 내 국민과 이주노동자와 체류자 사이에 불만이 누적되고 반한감정이 표출되면서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오세연·윤경희, 2015: 295).

16) 동아뉴스, "무슬림 출산율 높아… 美백인들 '이슬람 포비아'", 2015년 12월 14일자.
17) 뉴스원, "佛 '이슬람포비아' 고조… 무슬림 증오범죄 3배 증가", 2016년 1월 20일자.

2. IS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한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범주화

본 장에서는 자국내 IS테러단체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한 소프트타깃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소프트타깃 테러의 극치를 보여 준 프랑스 파리테러(2015. 11. 15)와 아시아 최초로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된 테러사건인 자카르타 자살폭탄 테러사건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자국내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국내 IS테러단체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의 사례대상 범주는 최근 발생되어진 소프트타깃 테러 중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주요사례들 중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진 사건사례들이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IS테러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자카르타 도심테러와 소프트타깃의 극치를 보여준 파리테러를 통하여 자국내 IS테러단체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과 지리적으로 또는 최신경향을 볼 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파리테러, 자카르타 테러, 이스탄불 테러에서 나타난 소프타깃 테러 사건 사례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IS테러단체의 자국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 사례분석

(1) 프랑스 파리테러사건

가. 사례

2015년 11월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유럽의 심장부 프랑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 경기장 등 6곳에서 총기 난사와 자살폭탄 공격 등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130명이 사망했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유럽의 심장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연쇄 테러를 저지른 사건으로 프랑스 검찰의 수사 결과 이번 테러에는 3개 팀이 연루됐는데, 첫 번째 팀은 폭탄이 설치된 조끼를 입은 채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벌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은 자동소총과 폭탄조끼 등으로 무장하고 각각 파리 중동부의 음식점 등 여러 곳과 바타클랑 극장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7명은 현장에서 자폭하거

나 사살됐는데, 특히 테러 총책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당시 27세)는 11월 18일 프랑스 군경의 테러 용의자 검거 작전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후 파리 테러에 직접 가담한 용의자 중 유일하게 도망친 살라 압데슬람 체포가 수사의 관건으로 떠올랐으나, 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시리아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파리 테러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영역 확보에 주력하던 IS가 유럽 등 서방을 직접 겨냥한 테러로 활동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국제사회의 테러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칼리프 국가 수립을 선포한 IS는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 현지에서 영역 구축에 주력해 왔으나, 2015년 10월 이후부터는 터키 앙카라역 폭탄 테러, 러시아 여객기 테러 등을 일으키면서 중동을 벗어난 전 세계로 그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9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번 테러 행동대원의 대부분은 프랑스와 벨기에 국적의 이민자 출신 2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시적으로라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한 경험이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5259&cid=43667&categoryId=43667).

나. 사례의 분석

2015년 11월 13일 발생한 프랑스 파리테러 사건을 분석해 보면 테러의 장소는 유럽의 심장부 파리를 겨냥하여 발생하였고, 주로 테러의 대상은 축구장, 공연장, 카페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 즉 민간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자살폭탄이나 총기난사 등의 테러를 자행했다. 이는 과거 알카이다의 9.11테러와 비교분석해 보면 장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강한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 등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폭테러를 실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알카이다의 9.11테러의 경우 4대의 민간항공기를 이용한 High-Tech를 이용한 테러를 자행하여 국가의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하드타깃테러를 감행했다면, 프랑스 파리테러는 총과 폭탄과 같은 Low-Tech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일상적 생활에서의 공포를 극대화 시키는 소프트타깃이라는 테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양상은 9.11테러 이후 상징성이 강한장소나 건물에 보안경비 등이 강화하면서 거리에 있는 일반인 , 군인, 경찰, 등을 겨냥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기차역,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다중시설을 겨냥한 자살폭탄테러와 총기난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소프트타깃테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리테러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알카이다테러가 전 세계 무슬람지하디스트를 이용하여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들여 테러를 감행했다면, 파리의 소프트타깃테러는 이슬람국가와 그에 동조하는 지지세력의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외로운 늑대형 테러로 구성된 울프팩 테러로 소규모 인원이 단기간의 준비를 거쳐 기습적으로 대량인명을 살상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알카이다와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결합하여 좀 더 신속하고 기동성 있는 움직임을 통해 보안검색을 피하면서 사용무기도 개인용 소용화기와 자살폭탄조끼 등으로 무장하면서 주변의 눈에 띄지 않고 목표물에 도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명이 테러를 자행 하여 피해의 규모가 크고 공포심을 극대화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이어 11월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연이어 IS테러단체 테러 표적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어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교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고, 프랑스 자국내 시민들도 이슬람에 의한 연이는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이슬람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의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IS테러단체들이 테러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파리 연쇄테러 IS테러단체의 최대 본거지이자 심장부인 시리아의 라카(Raqqah)를 대대적으로 공습하면서 보복에 나서면서 IS테러단체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테러사건

가. 사례

2016년 1월 14일 아시아지역에서 최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고급호텔, 카페 등이 몰린 번화가에서 폭발과 총격이 일어났으며, 이날 카페안에서 3명이 자살폭탄을 터트렸고, 유엔사무실과 시리나 대형쇼핑몰 앞, 경찰서 앞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8명이 사망하였다. 자카르타 테러의 특이한 점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되어진 테러라는 점과 IS테러단체에 가담한 현지인의 지령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테러의 총책이 인도네시아 출신임이 드러나면서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소프트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IS테러단체에 합류한 외국인 출신도 100개국 이상이다(Fact Brief, 파리테러 전후 전세계 IS 소프트타깃 테러 현황,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년 1월 18일자).

나. 사례의 분석

2016년 1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분석해 보면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의 대상지역이 그 동안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선진국 또는 시리아 등 이슬람 수니파와 대립된 지역이 국한되어졌다면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테러는 테러의 대상지역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즉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더 이상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시아와 먼 거리에서 발생하는 '남의 나라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나라에서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하게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파리테러를 이후로 시리아 하사카주 테러, 이라크 바그다드 자살폭탄 테러, 터키 이스탄불 테러까지 최근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한 테러들 대부분이 하드타깃 테러에서 소프트타깃 테러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경찰등의 반격의 위험성이 적고 테러성공가능성이 높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파급효과까지 가지고 있어 IS테러단체에 의해 발생한 테러들이 하드타깃보다 소프트타깃 테러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터키 앙카라에서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로 민간인 100여명이 사망한 후 터키전역이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한다.[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테러범은 IS테러단체에 가입한 현지인의 지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테러의 총책도 인도네시아 출신의 자생적 테러리스트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2015년 10월에 발생한 터키 앙카라 자살폭탄 테러의 경우에도 테러범은 터키 아드야만주의 마을 출신으로 자생적 테러범이었고, 프랑스 파리테러의 경우에도 테러 총책이 벨기에 국적의 IS테러단체의 조직원이었다. 즉 IS테러단체가 외부에서 테러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운 후 현지 대원들을 통해 소프트타깃 테러를 실행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에 IS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힌 사람이 10여명이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테러단체 가입자 50여 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김모군이 IS에 가입하려고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에 간 것이 알려졌지만 그 이후에 2명이 IS테러단체에 가입을 시도하려하였으나 공항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으며 손모 씨 등 2명이 새롭게 IS

18) 미디어펜, "아시아 상륙IS 소프트타깃 테러 한국이 위험하다". 2016년 1월 18일자.

테러단체에 가담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밝혀졌다[19].

3) 자국 내 IS테러단체의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가능성의 예측

우선 프랑스 파리테러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우리나라 사회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 등의 체류자가 있으며 무슬림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국민의 외국 이주노동자와 체류자의 증가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적인 처우는 IS테러단체들이 이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프랑스 파리테러처럼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IS테러단체가 이슬람국가의 건설 대항세력인 '십자국동맹'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키면서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는 더욱더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테러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IS테러단체에 의해 아시아 최초로 발생되어졌다는 점과 최근 소프트타깃 테러의 대부분이 IS테러단체의 지령을 받은 외로운 늑대형의 자국출신이라는 점 등을 분석해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며 언제든지 IS테러단체의 훈련과 지령을 받은 자국민이나 자국내 소외된 외국인에 의해 소프트타깃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김모군이 IS테러단체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국내에 IS테러단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힌 사람도 10여명이 있고, 지난 5년 동안 테러단체 가입자 50여 명이 넘는 등 직간접적으로 IS테러단체에 가입, 가담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테러발생 위험가능성은 결코 배제 할 수 없다.

IS테러단체의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생될 수 있는 테러 유형으로는 위에 각국의 사건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IS테러단체가 직접 테러행위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IS테러단체에 의한 시리아와 같은 훈련 거점지역에서 훈련을 받은 자국내 외로운 늑대로 구성된 테러조직원이나 난민으로 가장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살폭탄 조끼나 총기난사 등의 소형무기를 통한 대량 인명살방식의 소프트타깃 테러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 KBS, "국내 IS 공개 지지자 10여 명… 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 출국조치", 2015년 11월 18일자.

Ⅳ.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1.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의 비주류 소수집단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출산율과 3D업종 등의 부족한 인력 대체 등을 위해 이미 국내에 외국노동자들이나 이주민 등의 체류외국인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2월말 현재 체류외국은1,856,656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1,787,728명)에 비해서는 3.9% 증가하였고, 이 중 아랍계 무슬림의 숫자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010년도 25,747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자료의 조사에서는 약 53,407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아랍계의 출·입국자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자국내 외국노동자와 이주자 등의 체류외국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특히 이슬람에 대한 국내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IS테러단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생한 소프트타깃 테러, 즉 자카르타 도심테러의 경우처럼 IS테러단체의 지령을 받은 외로운 늑대형의 자국출신이며, 프랑스테러에 가담한 테러범도 이슬람인으로 밝혀졌다. 최근의 이슬람에 의한 연이는 테러사건으로 국내의 체류외국인을 비롯한 이슬람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이 확산된다면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IS테러단체와 협업을 이룬 자생적 테러가 충분히 발생할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국내 이슬람을 포함한 체류외국긴 등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이에 기초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인식의 전환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는 법체계의 정비와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제노포비아 중 특히 이슬람포비아와 같은 이슬람인에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앞서 발생한 테러에서 노르웨이 총기난사 사건의 경우 테러범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혐오감이 있었으며 프랑스 파리테러의 경우에도 테러 이후 반이슬람 성향자들이 이슬람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고 프랑스인의 이슬람에 대한 생각이 폭력적이며, 광신적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생적 테러를 부추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앞선 사례를 볼 때 자국내 체류외

국인에 대한 제노포비아[20]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전환은 소프트타깃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분별한 대중매체의 외국인 등에 대한 비하 태도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냉소적인 시각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에 대해 외국인 정책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채제구축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이상열, 2015: 117-118).

다음으로 법제도의 정비와 집행에 있어서 불법체류자 자녀들에 대한 국적취득요건을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허경미, 2014: 250). 또한 자국내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동시에 그들과 자국민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오세연, 2013: 160).

2.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개선방향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겪고 난 이후 테러리즘의 차단 및 방비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USA Patriot Act, 애국법)을 2001년 10월26일에 제정했으며, 영국도 반테러법을 강화해 테러방지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테러를 조장하는 내용과 테러조직의 선전물을 전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HM Government, 2011: 77-80).

우리나라도 최근의 국제적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16년 3월 2일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일명 테러방지법이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되면서 자국내 발생되어질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적 발판이 마련되어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안이 좀 더

20) 낯선 것, 이방인이라는 뜻의 '제노(xeno)'와 싫어한다, 기피한다는 뜻의 '포비아(phobia)'를 합쳐 만든 말이다.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된다. 상대방이 악의가 없어도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일단 경계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경기 침체 속에서 증가한 내국인의 실업률 증가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전가시키거나 특히 외국인과 관련한 강력 범죄가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테러 특히 대량인명살상을 할 수 있는 소프트타깃테러에 대비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전담조직과 관련하여 국정원조직의 권한을 강화한 전담조직들을 제시하고 있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기동성과 긴박함의 특성을 감한할 때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법안에서 대테러전담조직관련 규정에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국정원권한을 강화한 전담조직들을 제시하고 경찰이 감당 할 수 없는 테러발생시 군에 소속된 대테러부대가 대테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장관급이 투입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둘째,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통신이용, 출입국관리, 금융거래 등의 내역 수집에 따른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여 인권보호와 사생활침해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감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수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청영장을 받도록 하여 악용의 소지는 줄었으나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요청의 우려가 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테러인권보호관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있지만 대테러인권보호관은 조사권한이 없고 인권침해시 시정권고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나 대처수단이 없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크게 한 기구에 대한 특정권력 집중과 남용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정원이 아닌 제 3의 조직을 신설하여 독립기관으로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안에 있는 대테러인권보호관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인권침해에 대처하게 하거나 제3의 조직안에 감시기관과 대처기관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3.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한 테러대응 모의시뮬레이션의 개발과 활용

소프트타깃 테러가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극장, 식당,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심가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소프트타깃 테러

중 프랑스 파리테러의 경우에도 공연장과 축구장 등 일반시민이 많이 모인 곳에서 발생하였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도심테러의 경우에도 고급호텔, 카페 등이 몰린 번화가에서 테러가 일어났다. 소프트타깃 테러가 하드타깃 테러와는 달리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특정인물과 상징성 있는 건물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장, 도심가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시 관광객이나 자국민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중에서 특히, 서울지역은 명동, 동대문시장, 고궁, 남대문시장[21] 등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소프트타깃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면서 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경기장이나 행사장에 운집하게 되고, 이때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공격에서 예외일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자국내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의 가능성이 예측되며 테러와 위기 발생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정책의 하나로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을 통한 테러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특히, 경기장과 국제행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테러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람객의 피난행동 및 피난안전성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난장애와 피난시 인원의 분산, 효율적인 피난을 위한 경비인력 배치의 적절성 확보, 유도방향 및 체계확립, CCTV와 같은 장비의 합리성, 실무현장에 투입되는 관련자의 전문성 등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박남권·윤명오·이영주, 2012: 28).

21) 문화체육관광무의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방문지 중에는 명동의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동대문시장, 고궁, 남대문시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은 영종도/공항주변/인천대교 방문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고, 월미도/차이나타운/연안부두 33.0%, 송도 22.9%, 강화도 9.4% 등의 순으로 방문비율이 높았다. 부산의 경우는 해운대/누리마루 65.2%, 광안리/ 광안대교 51.2%, 용두산/자갈치시장 34.4%, 태종대 30.6% 순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된 소프트타깃 테러사건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예측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자국내 주변상황과 프랑스 파리테러사건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소프트테러사건인 자카르타 도심테러를 분석하여 자국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의 공통점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자국내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불법체류자 등을 비롯한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IS테러단체에 가입하여 IS의 조직원이 되어 협업을 이룬 자생적 테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국내 비주류소수집단과 같은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차별과 편견을 금지하는 법체계의 정비와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은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한 기구에 대한 특정권력 집중과 남용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시행에 따른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우선특정권력의 집중과 견제를 위해 국정원 이외에 제3의 조직을 신설하여 독립기관으로 대테러컨트롤타워를 두고, 대테러인권보호관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거나 별도의 감시, 대처기구를 두어 감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대처하게 하여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응한다.

셋째,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한 피난모의 시뮬레이션의 개발과 활용이다. 소프트타깃 테러 대부분이 민간인이 많이 모여 있거나 다니는 번화가, 건물, 행사장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테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개발과 이를 통한 테러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때 IS테러단체와 연계되어진 자국내 외국인 또는 자국내 국민에 의한 자생적 테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테러는 최근의 사례에서도 분석되어진 것처럼 불특정다수인을 노리는 소프트타깃 테러의 유형으로써 자국내 외국인관광객과 사람

들이 붐비는 명동, 홍대, 남대문 등의 번화가나 행사장 등에서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기본으로 한 장기적인 테러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영숙 (2014).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조직 위협실태. 한국테러학회보. 7(4), 7-38. 한국테러학회.

박주혁 · 박진희 (2015). 국내 대체러법안의 쟁점과 기본방향. 치안정책연구. 29(1), 295-328. 치안정책연구소.

박남권 · 윤명오 · 이영주 (2012). 대규모 국제행사장의 경호경비계획에 관한 연구: 인천 아시안게임 K경기장의 피난안전성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0, 7-32. 한국경호경비학회.

윤민우 (2014). 최근 국·내외 테러동향과 테러공격방법에 대한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지. 9(3), 221-248. 한국경호경비학회.

오세연 (2015). IS테러를 중신으로 한 국제테러의 변화양상 분석. 재난정보학회지. 11(3), 429-435. 한국재난정보학회.

이상열 (2015). 뉴테러리즘의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7(2), 96-126. 한국경찰학회.

오세연 · 송혜진 (2013). 한국 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Lone-Wolf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연구. 경찰학논총. 6(3), 140-16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오세연 · 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내 테러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277-308, 한국경호경비학회.

정육상 (2015).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유럽헙법연구. 18, 171-198. 유럽헙법학회.

허경미 (2014).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1), 233-259.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 국외문헌

Jon Moran (2005). State Power in the War on Terror: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K and USA. Crime Law & Change. Vol 44.

Hesterman Jennifer L (2013). *The Terrorist- Criminal Nexus*, CRC Press.

HM Government, Prevent Strategy (2011). Presented to Parliament by the S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by Commend of Her Majesty.

3. 기타

뉴스한국, “IS 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아시아까지 번졌다”, 2016년 1월 16일자.

미디어팬, “아시아 상륙 IS ‘소프트타깃’ 테러 한국이 위험하다”, 2016년 1월 18일자.

연합뉴스, “국가별 변화대응능력지수(CRI) 순위”, 2016년 3월 21일자.

정규진. 미 공습 안 먹히는 시리아 IS, 왜 일까?. SBS. 2014년 10월 5일; 조선미. IS ‘힘에서 밀리면 인질 참수’ 전략. 메트로신문. 2014년 10월 5일; 이정진. ‘패배 뒤 참수’ 행동양식 보이는 IS. 연합뉴스. 2014년 10월 5일.

“IS, 어린이 수백명 목숨 빼앗아… 자폭테러 이용도”. 유엔본부 AFP=연합뉴스. 2014년 9월 9일.

“Al Qaeda tightens grip on western Iraq in bid for Islamic state”. 2013년 12월 11일.

http://edition.cnn.com/2014/06/12/world/meast/who-is-the-isis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8574&cid=43667&categoryId=43667

헤럴드 경제, “IS 연이은 테러가 내포한 또 다른 위험… 알카에다와의 ‘테러 경쟁’”, 2016년 3월 24일자.

뉴스한국, “IS 소프트타깃 테러 공포 아시아까지 번졌다”, 2016년 1월 15일자.

메트로 신문, “IS, 인도네시아 거점화… 동아시아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2016년 1월 16일자.

뉴스줌, “아시아에 번지는 ‘IS 공포’… 각국 테러 비상” 2016년 1월 15일자.

연합뉴스, “IS 아시아 상륙에도 잠자는 테러방지법안”, 2016년 1월 15일자.

동아뉴스, “무슬림 출산율 높아… 美백인들 ‘이슬람 포비아’”, 2015년 12월 14일자.

뉴스원, “佛 ‘이슬람포비아’ 고조… 무슬림 증오범죄 3배 증가”, 2016년 1월 20일자.

KBS, “국내 IS 공개 지지자 10여 명…테러단체 가입자 50여명 출국조치”, 2015년 11월 18일자.

【Abstract】

A study on possibility of soft target terrorism by ISIS in South Korea

Oh, Sei-Youen · Yun, Gyeong-Hui

These days, ISIS terrorists have been expanding not only to european countries, but also to asian countries so South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errorists' attacks. Especially, 'soft target terrorism' makes many people maximizing fear of terrorism because it is caused by small groups - those who are armed with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and they are able to carry out hit and run attacks on civilian targets. It poses even more dangerous to kill massively.

That is why November 2015 Paris attacks and January 2016 Jakarta attacks killed and injured many people because of 'soft target terrorism.' Therefore, the South Korea has als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errorism by ISIS. The study has shown the precautionary measures about 'soft target terrorism' and how to defend against 'soft target terrorism' by looking through overseas examples. It is for the possibilities of 'soft terrorism'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expansion of ISIS.

As a result, 'soft target terrorism', caused by ISIS, could happen in South Korea. The counterpla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soft target terrorism', which is collaborated with ISIS and domestic terrorists, could be caused by negative awareness of foreign residents and xenophobia so the public should change stereotypes about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re should be legislation about racial discrimination enacted by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must practice the law. Second, the Korean anti-terrorism laws should be modified to minimize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 Korean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top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to the hands of one law enforcement. Third,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and to initiate the refuge&evacuation simulation, which prepares for 'soft target terrorism' and minimizes the damages if terrorists attack hot spots like central commercial areas or event halls.

Keywords : ISIS Terrorism, Islamic Terrorism, Soft Target, Indiscriminate shooting terrorism, Anti-terrorism Law